

이찬진 “불공정거래 수사 강화… 여신 규모, 더 낮게 관리”

〈금융감독원장〉

특사경,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 가능
은행권 신용대출 등 규제 강화 예고
“금융공공기관 이전, 현실 고려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월례 간담회를 열고 중동 리스크 대응부터 자본 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강화, 가계부채 관리 등 전방위 현안을 점검했다.

◆ 특사경 수사권 확대

먼저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특사경 기능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집무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감원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고발 없이도 직접 인지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조사→증권위→검찰’로 이어지던 절차가 ‘조사→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수사’로 단축되면서 사실상 주도적 수사기관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이 원장은 “그동안 특사경이 보조수사 기관 역할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조사 단계에서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며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일반 수사기관보다 밥값을 월등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출입기자단과 3월 월례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게 잘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전문성 부족 및 과잉 수사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그는 “특사경은 현장 조사 경험과 이해도가 높은 인력으로 구성돼 있고, 검찰에서도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며 “자문관·과건 수사관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필요 시 검찰과 협업을 위한 법수집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수사권 확대에 따른 통제 장치도 병행 구축한다. 금융위 산하 수사

심의위원회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금감원 내부에서도 사전 검토를 위한 수사심의협의체를 운영해 이중 통제 구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중동 전쟁 장기화 가능성 대비

금감원은 중동 정세 장기화 가능성을 전제로 금융시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 이후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됐지만 주가는 연초 대비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채 스프레드도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전후에서 등락

중이며,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74.4%로 규제 수준(80%)을 크게 상회하는 등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에너지 공급망 교란 등 실물경제 충격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용공여와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실제 3월 초 중동 리스크 확대 시 반대매매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총량 관리 목표 발표를 앞두고 “여신 증가 속도는 기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은행별 신용대출 한도 설정 등 대출 규제 강화도 예고했다.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함께 “불법 확인 시 형사 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했다.

◆ 업권별 리스크 전방위 점검

업권별 리스크 점검도 병행된다. 해외 사모대출 펀드는 정보 비대칭성과 레버리지 구조로 인해 고위험 상품으로 지목됐다. 특히 보험사 익스포저가 약 28조원 규모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기금·공공기관 투자도 상당한 수준

이다. 다만 총자산 대비 비중이 낮아 건전성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금감원은 미국 운용사를 통해 기초자산 현황을 재점검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투자자 문의가 증가하는 등 초기 손실 인식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가상자산 부문에서는 빚썸 오지급 사고 검사 결과 내부통제 미흡이 확인됐으며, 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다른 주요 거래소도 합동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 분야에서는 상품 설계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한다. 단기 성과 중심 보상체계를 장기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판매채널 책임성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금융공공기관 지방 이전(원주 이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 없다”면서도 “금융감독의 현장은 서울에 집중돼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국내외 주식거래 폭증… 증권사, 순이익 10조 ‘눈앞’

증권사 61곳, 1년만에 순이익 2.7조 ↑
ROE 10% 달성… 수익성 개선 ‘뚜렷’

국내외 주식 거래가 폭증하면서 증권사 실적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 지난해 국내 주식 거래대금이 63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증권사 순이익은 1년 만에 2조 7000억원 넘게 증가하며 10조원에 근접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2025년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잠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 61곳의 당기순이익은 9조 6455억원으로 전년(6조 9441억원) 대비 2조 7014억원(38.9%) 증가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7.9%에서 10.0%로 올라 수익성이 뚜렷하게 개선됐다.

이번 실적 개선은 사실상 ‘거래대금

〈증권회사 규모별 순자본비율 추이〉

구분	24년말	25년말
대형사	1,147.1	1,316
중형사	412.5	470.9
소형사	280.5	300.5
전체	801.2	915.1

단위: % /금융감독원

효과’다. 지난해 국내 주식 거래대금은 6348조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고, 해외주식 결제금액도 24.3% 늘었다. 이에 따라 수탁수수료는 8조 6021억원으로 2조 3383억원(37.3%) 급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수수료 기반 사업 전반도 동반 성장했

다. IB 부문 수수료는 인수·주선 및 채무보증 확대 영향으로 4조 864억원을 기록하며 9.2% 증가했다. 자산관리 부문 역시 펀드 판매와 투자일임 수요 증가에 힘입어 1조 6333억원으로 26.4% 늘었다. 종합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확대에 따라 대출 관련 이익도 4613억원 증가했다.

자기매매 부문에서는 자산별로 희비가 갈렸다. 주식과 펀드 관련 손익은 증시 급등 영향으로 크게 증가했지만, 파생상품 손익은 헤지 운용 손실 확대로 7조 1890억원 감소했다. 채권 손익도 금리 상승 여파로 2조 6636억원 줄어듦에 전반적인 수익 구조의 변동성을 드러냈다.

외환과 대출 부문에서는 추가 이익이 발생했다. 환율 변동 영향으로 외환 관련 손익이 1조 6860억원 증가하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고, 신용공여 확대에

따른 이자수의 증가도 실적 개선에 기여했다.

재무 규모 역시 빠르게 확대됐다. 지난해 말 증권사 자산은 943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88조 7000억원(25.0%) 증가했다. 주식 등 증권 보유액이 82조 7000억원 늘었고, 현금 및 예치금도 47조 8000억원 증가했다. 부채는 예수부채와 차입금 증가 영향으로 841조 5000억원까지 확대됐고, 자기자본은 102조 4000억원으로 10조 7000억원 늘었다.

건전성 지표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순자본비율(NCR)은 915.1%로 전년 대비 113.9%포인트 상승하며 규제 기준(100%)을 크게 웃돌았고, 레버리지비율은 693.7%로 전년 대비 37.3%포인트 상승했지만, 규제 기준(1100%) 이내를 유지했다. /허정윤 기자

고환율에 서학개미 주춤… 국내증시 복귀 움직임

해외주식 Click

RIA 주목… 제도 실효성 관건

고환율 여파로 서학개미(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투자 열기가 식어가는 가운데, 해외투자 자금 유턴을 유도하는 국내증시 복귀계좌(RIA)가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2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25일까지 서학개미들은 미국 주식을 6억 4100만달러 순매수했다. 동일 기간 지난 1월에는 44억 800만달러, 2월에는

39억 1700만달러를 사들인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급감했다. 특히 25일에는 4억 7400만달러를 순매도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10원을 넘어서며 17년여 만의 최고치를 보이면서 투자심리가 약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24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금액은 1578억 8800만달러로, 올해 1월 말 1680억 1400만달러 대비 감소했다. 1700억 1809만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지난해 10월 말과 비교해서는 약 7% 줄어든 규모다.

이러한 미국 주식 투자 둔화 흐름은

지난 23일 출시된 RIA와 시너지 기대를 키우고 있다. RIA는 해외주식투자 매도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재투자할 경우, 요건에 따라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양도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계좌다.

실제로 RIA 출시 초반부터 수요가 몰리고 있다. 지난 23일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RIA 계좌 출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을 쏟아내며 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결과적으로 증권사별로 수백에서 수천개 상당의 RIA 계좌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은 3영업일 만에 가입자 1만계를 돌파했다고 밝혔으며, 삼성증권도 4일 만에 RIA 계좌 잔고가 300억원을 넘어섰

다고 집계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흐름에서는 국내와 해외주식의 방향성이 엇갈리면서 대체관계가 강화되고 있다”며 “대체 관계가 이어진다고 하면 반도체 업황이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한 낙관론을 보유한 개인은 유턴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다만 유턴 확대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핵심은 RIA의 도입 여파인데, 제도 성패의 관건은 개인의 유턴 여부이며 결론은 조건부”라며 “올해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공제비율이 줄어드는 만큼, 개인 입장에서 해외 투자를 일부 포기할지 혜택 조정을 감내할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반도체 ETF 개인 순매수 2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반도체 TOP10 ETF’의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이 2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 8월 상장한 ‘TIGER 반도체 TOP10 ETF’는 25일 기준 개인투자자 누적 순매수 금액 2조 580억원을 기록했다. 연초 이후에만 1조 6000억원 수준의 개인 순매수가 유입되며 국내 반도체 주요 기업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확인됐다.

지속적인 자금유입으로 순자산도 8조 8353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국내 주식형 테마 ETF 중 최대 규모이자, 국내 ETF 시장 전체에서도 세 번째로 큰 순자산 규모다. /허정윤 기자

한양증권, 현금배당 확대

한양증권이 배당 확대와 이사회 재편을 통해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정비에 나섰다.

한양증권은 26일 제71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현금배당과 사외이사 선임 등 상정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배당을 통해 한양증권은 보통주 1주당 1600원(시가배당률 6.9%), 무의결권 배당우선주인 종류주 1주당 1650원(시가배당률 7.5%)의 현금배당을 확정했다. 보통주 기준 배당금은 전년 대비 67.9% 증가했으며, 배당성향은 연결 기준 37%다. 이에 따라 한양증권은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사외이사로는 강선남 고려휴먼스 대표이사가 신규 선임됐다. /신하은 기자